





호남의 소금강으로 한반도의 기운이 응결하여 빙설옥수가 흐르는 월출산 용추골에 아름답게 자리한 기찬랜드는 천연 자연풍장이 조성되어 수많은 피서객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기찬랜드에 공급하는 수원은 천황봉에서 발원하여 맥반석으로 이루어진 계곡을 따라 사방댐에 담수하여 천연수만을 사용하므로 최고의 수질은 물론 각종 미네랄이 함유되어 건강에도 유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주변에는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기찬릿길, 가야금산조기념관, 영암 노래 하춘화노래비, '독천장 가는 길' 전석홍 시인 시비 등 볼거리와 휴식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빼어난 자연을 자랑하는 월출산 천황봉자락 맥반석에서 나오는 기와 계곡을 흐르는 청정 자연수를 활용하여 새롭게 조성된 영암의 대표적 관광명소이다. 이 지역은 월출산의 경기를 받아 불후의 민족음악을 창시한 악성 김창조 선생을 비롯하여, 제헌국회의원 낭산 김준연 선생, 해병대사령관 해군대장 강기천 장군, 바둑의 황제 조훈현 등 탁월한 인물들이 태어난 곳이다. 월출산 기찬랜드에는 가야금테마공원을 조성하여 민족문화를 체험할 수 있으며, 산림욕장, 웰빙 기도로, 자연형 풀장, 펜션,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군민은 물론, 웰빙을 추구하는 관광객들이 즐겨 이용할 수 있다.



지상의 기(氣)를 모아 하늘로 솟구치는 형국의 월출산 기슭을 따라 조성된 월출산 웰빙기도로는 월출산의 물(水), 숲(林), 바위(巖), 길(路)을 체험하며 심신을 단련하는 건강도로이다. 월출산 웰빙기도로는 1단계로 천황사지구에서 왕인박사유적지까지 약 13km의 도보전용 건강도로를 개설하고 있으며, 2단계로는 학산-미암까지 총 40km의 백리길 기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다. 월출산의 경기를 느끼며 휴식과 신체단련을 통한 건강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월출산 기도로는 천황사지 입구에서 기계육공원을 거쳐 기찬랜드까지 4km와 왕인박사유적지에서 도갑사 입구까지 3km 구간이 개설되어 많은 군민과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있다.

입장료 및 주차요금

구분	어른	청소년	어린이	비고
개인	6,000원	4,000원	2,000원	군민 1,000
단체	5,000원	3,000원	1,000원	20명 이상

실내물놀이장

구분	대인	소인	무료	비고
개인	5,000원	3,000원	만 3세 미만 무료 만 65세 이상 무료	

문의 : 영암문화재단 061)471-8500